

결핵에 대한 小考 몇 가지! 왜 생기며, 어떤 증상이 있을까?

글 □ 편유장(예천권내과 호흡기내과 진료부장)

과거에도 물론 문제가 되었지만, 최근 들어서도 결핵은 여전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약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반적인 결핵이었지만, 요즘 들어서에는 약에 효과가 없는 다제내성결핵이란 것이 창궐하는 시대이다.

물론 과거에 요즘처럼 약물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한다면 결핵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평범한 질환일 것이다. 경제적으로 결핵을 정복하기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 마련된 지금에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골치 아픈 의학적인 문제를 많이 내포하게 되었다.

1950년대에 스트렙토마이신이란 약이 나오면서 모든 결핵을 퇴치할 것이란 믿음이 이제는 십여 가지 이상의 약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결핵이 퇴치될 거라는 그 믿음마저 산산이 부서진 시대

에 살고 있다.

지금부터 필자는 결핵을 현장에서 진료하면서 환자들에게 이 말만은 꼭 해주고 싶다는 내용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

결핵은 왜 생기나?

결핵은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결핵균이 몸 안에 들어와서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결핵균이 몸속으로 들어오고, 이 결핵균을 잡기 위해서 우리 몸은 여러 가지 방어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어 수단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우리 몸의 일부가 파괴되고 이러한 파괴 현상으로 결핵이란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결핵균은 그리 독성이 강한 놈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그 자체로는 아주 허약한 아이나 노인에게서 아니면 최근에 늘고 있는 에이즈 환자들 같은 면역저하 환자에게 큰 문제가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결핵은 우리 몸의 과다한 방어 때문에 생기는 병변이다. 그리하여 폐의 여러 부분이 파괴가 되고, 그 후에 결핵이란 병이 치료가 끝나도 그 병변의 흔적은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마음고생을 한 분이 많을 것이다. 왜 결핵치료가 끝났는데도 검사를 하면 계속 결핵이라고 보고될까? 이러한 것들은 과거의 결핵의 진단에 너무 흉부 방사선 사진에 대해 너무 맹신한 것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된다.

엄밀히 말해서 흉부 방사선 사진으로는 결핵으로 인한 파괴의 정도를 볼 수는 있지만 현재 파괴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의 흔적인지는 알기 힘들다. 다시 말해서 결핵은 '결핵균'이란 세균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고 이것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조직파괴가 되는 병이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결핵균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진단이 된다. 결핵균을 확인하지 않고는 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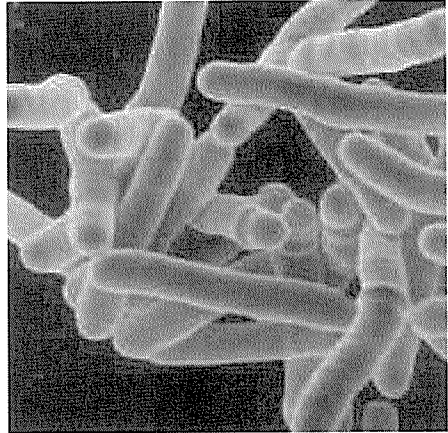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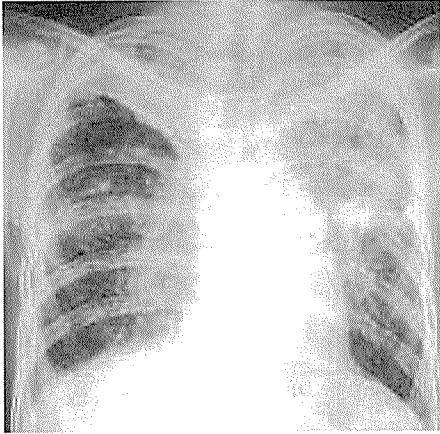
디까지나 추정진단인 셈이다.

결핵은 어떤 식으로 전염이 될까?

결핵의 전염은 환자의 기침 시에 나오는 미세한 물방울로부터 전염이 된다. 결핵환자가 기침을 하게 되면 수많은 침방울이 튀겨져 나온다. 이러한 침방울 중에 아주 작은, 대략 5마이크론 정도의 미세한 침방울이 다른 사람의 기관지 속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고 그것이 군집을 형성하여 병이 발단하게 된다.

이러한 전염 경로로 볼 때 그렇게 쉽게 전염되는 것은 아니다. 가끔 “결핵 환자와 식사를 같이” 했는데, 또는 “키스를 했는데 전염이 되지 않았을까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위와 같은 경로로 전염이 쉽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정설이다. 다만, 위와 같은 행동들은 결핵 환자와 친밀히 같이 지내는 시간이 많음을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예이다. 즉, 환자가 기침을 할 때 그 물방울을 자신의 기관지 속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주위에 결핵 환자가 생기면 그 사람을 회피하고 마주보려고도 하지 않는 경우를 흔하게 볼 수 있는데 이는 안타까운 일이다. 물론 100% 전염



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생활로 그렇게 염려할 만큼 쉽게 전염되는 병은 아니다. 결핵 환자가 주변에 생겼다고 그 환자를 격리시키려고 하지는 말자는 것이다. 결핵의 전염은 일반적인 경우라면 약물 복용과 함께 사라진다는 것이 정설이다.

결핵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생기나?

결핵에 걸리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게 된다. 그래서 흔히 결핵을 천의 얼굴을 가졌다고들 한다. 그만큼 결핵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증상 및 현상들이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결핵의 증상을 보면 그 중에

서도 폐결핵의 경우를 보면 원인 모를 오랜 기침, 자기 전 괜히 식은땀이 나서 베개가 흥건하게 젖을 정도거나 기침 후 가래를 뱉으면 피가 섞여서 나오고, 주로 오후만 되면 원인 모르게 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이 있다고 무조건 결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현상이 생겼을 경우에 의사를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아봐야 한다.

결핵에서의 증상은 '이것이 결핵이로구나' 하는 뚜렷한 증상이 없다고 해야 할 정도이다. 위에서 필자가 말한 결핵의 증상의 특징은 그나마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 이것 또한 절대적인 증상들은 아니다.

특이한 증상이 부재하면, 처음 병원을 찾게 되는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대부분은 감기인 줄 알고 치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수록 결핵은 더욱더 극성을 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즉, 결핵균을 퍼뜨리고 있는 상태에서 약을 먹으면 대부분이 전염력이 사라져서 그대로 정상적인 삶이 되나, 약을 먹을 때까지의 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더 많은 전염을 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결핵에 대한 특이한 증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검사의 도움 없이는 진단하는 데 힘이 든다는 말이다.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2-3주 이상 끌게 된다면 반드시 결핵에 대한 검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결핵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

결핵은 결핵균이 처음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생기는 현상과 재차 들어왔을 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결핵균이 처음 몸속으로 들어와 병을 일으키는 경우를 일차 결핵이라 하고, 이러한 일차 결핵은 보통은 소아에서 주로 생기기 때문에 소아 결핵이라고도 한다.

결핵균이 예전에 들어왔던 사람에게 다시 결핵균이 들어왔을 때 생기는 결핵의 현상을 이차

결핵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결핵이며, 주로 성인에서 생기기 때문에 성인결핵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이차 결핵은 조금 전에 말한 인간의 과다한 방어 작용으로 생기는 현상이다. 처음 결핵균이 들어왔을 때, 결핵균이란 것을 우리 몸이 기억하고 그것에 대한 방어수단을 강구해 놓는다. 그러다 다시 결핵균이 재차 들어오면 그러한 방어 수단들이 결핵균을 가두게 되고 그리하여 온 몸으로 결핵균이 퍼지는 것을 막게 된다. 그래서 주로 폐결핵에 국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방어력이 없어지면, 결핵균은 온몸으로 퍼지게 된다. 그런 경우,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우리가 흔히 어릴 때 접종하게 되는 BCG 접종이 있다. 흔히들 “BCG 접종을 했는데 왜 결핵에 걸리나요?” 라고 질문을 한다. BCG 접종이란 우형 결핵균을 접종함으로써 아주 약한 일차 결핵을 거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한 번 BCG접종을 한 경우라면 다음에 결핵균이 들어왔을 때 이차 결핵처럼 만들기 위함이다. 일차 결핵의 심각하고 치명적인 합병증을 만들지 않기 위함이지 결핵 자체를 막는 방법은 아니다. †